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The Influence of Parenting Behaviors, Marital
Conflict, and Sibling Relations on Aggression in Children

김민정*

Kim, Min Jung

도현심**

Doh, Hyun Sim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marital conflict and sibling relations on aggression with a sample of 301 6th graders (161 boys and 140 girls) living in P city. The subjects answered questionnaires regarding parenting behaviors, including sub-scales of physical punishment and psychological control, marital conflict, and sibling relations. Aggression was rated by peers. The results indicated that boys showed higher overt aggression than girls; children were aggressive when parents frequently used physical punishment and psychological control; the more children were exposed to marital conflict, the more aggressive they were, with particularly high correlations for girls; and the less positive and the more negative the sibling relations, the higher the aggression shown by children. Among the variables, parent's behaviors were the most highly correlated with aggression in both boys and girls.

Key Words

공격성(aggression),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s),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형제자매관계(sibling relations)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조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기의 공격성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지속되어(Olweus, 1991), 개인의 건강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왔다. 공격성은 학령기 초기에서 청소년기 사이에 최고에 달하며(Anderson, Russel, & Schumm, 1983),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한다(장지순, 1999; Bryant, 1992). 더구나 학교에서 또래와 지내는 시간이 점차 증가하는 학령기 말에 발견되는 공격성은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더불어 예방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그 결과 아동기 공격성의 관련변인을 이해하는 데 많은 진보가 이루어졌다.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들 수 있다. 특히 부모는 아동으로 하여금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게 하는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아동의 공격성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부모의 배척, 신체적 처벌, 위협, 강압적인 명령을 비롯하여 거부, 무관심, 심리적 통제 및 자녀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등과 같은 요인들이 자녀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한다(Barber, 1996; Hart, Nelson, Robinson, Olsen, & McNeilly-Choque, 1998). 실제로 부모의 양육행동 중 신체적 처벌 및 심리적 통제와 같은 행동은 아동에게 공격행동을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요인이 된다(Perry, Kusel, & Perry, 1988). 학교에서 공격성을 외부로 많이 표현하는 아동은 어

머니가 신체적 처벌을 많이 사용한 경우로서(Sears, 1961), 인격 손상적이며 강압적인 처벌은 자녀로 하여금 좌절감을 경험하게 하고, 이러한 좌절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나 적대감의 형태로 나타난다(Saltzstein, 1967). 부모의 처벌과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를 주제로 한 국내의 연구들에서도 부모가 신체적 처벌을 할 때 이것은 공격적인 모델을 제공하여 공격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효정, 1991).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경험할 때, 아동은 또한 정서적 안정을 얻지 못하고 분노와 슬픔 등 부정적 정서상태에 빠져 공격적이 되기 쉽다(Davies & Cummings, 1994). 즉, 냉정하고 거부적인 태도, 의존성 조장 태도, 제한적인 태도, 무관심, 온정성의 부족과 같은 양육을 통해, 자녀는 적대적이며 공격적으로 성장하기 쉽다(Carson & Parke, 1996; Hart, Dewolf, Wozniak, & Burts, 1992).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훈육방법을 일관성 없게 사용하고 공격적인 행동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서적인 욕구를 좌절시켜 문제행동을 많이 하게 한다. 그들은 또한 아동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비일관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아동으로 하여금 공격성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Katz & Gottman, 1993).

이상 살펴본 연구들을 통해, 조사방법과 대상, 문화권 등이 다르긴 하지만 부모-자녀 관계 및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공격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신체적 처벌 및 심리적 통제와 같은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행동 외에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인으로 부부관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부부관계와 아동행동간의 관련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980년대 이후부터이다. Framo(1975)는 임상적 경험을 토대로 “아동의 문제 이면에는 부모의 결혼생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고, 많은 연구자들은 부부관계가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견에 일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Davies & Cummings, 1994; Fincham, 1994; Katz & Gottman, 1993). 공격성은 직접 경험뿐 아니라 목격을 통한 간접 경험으로도 아동에게 영향을 주므로(정준미, 1998), 부모가 상대 배우자를 언어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목격한 자녀는 공격적이 될 위험성이 높다(원지영, 1999). 부부갈등을 언어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으로 나누어 볼 때, 언어적 공격, 불화, 부부 서로간에 일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할 때, 아동은 정서적으로 혼란과 위협감을 경험하며(Fincham, 1994), 부부간의 언어적 공격성은 아동의 공격성, 위축 및 우울증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Johnston, Gonzalez, Campbell, 1987). 또한 신체적 폭력의 측면에서, 아동이 부모의 폭력 장면에 노출된 경우, 아동은 행동문제 및 또래 공격성이 증가하였고(Cumming, 1994a), 부부폭력을 많이 관찰한 아동은 모델링에 의해 또래에게 공격성을 보였다(Patterson, 1986). 지금까지의 연구들에 의하면, 언어적인 형태보다는 신체적 폭력을 동반한 갈등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 일치하고 있다(Cummings & El-Sheikh, 1991). 즉 아동은 부모가 서로의 대립을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이를 모델링하여 또래와의 대립이 생겼을 때 역시 공격적인 행동으로 대처하는 것과 같은 행동문제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Davies & Cummings, 1994). 아동

의 공격성에 대해서 부모-자녀관계가 직접적 경험을 제공한다면, 부부관계는 모델링을 통한 간접적 경험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갈등과 공격성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부부갈등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매우 드물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관계와 더불어 아동의 형제자매관계는 또래관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Dunn, Slomkowski, & Beardsall, 1994). 아동기의 형제자매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사회화에 중요한 장을 제공하고(Crouter & McHale, 1989), 형제자매를 통해 배운 사회적 기술은 또래관계와 같은 가족 외 관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tocker & Dunn, 1990). 또한 모델링 역할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격적 아동은 형제관계가 더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경향이 있다(Patterson, 1986). 긍정적 측면에서, 형제자매는 지지적, 긍정적 학습 경험을 통해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냄으로써 유능성, 오락, 지지, 도움, 공유, 가르침과 같은 친사회적 경험을 제공한다(Brody, Stoneman, & MacKinnon, 1982). 이와 동시에 스트레스가 많은 가족에서 형제자매는 서로 지지와 협력을 제공하고(Stoker & Dunn, 1990), 부모나 또래와의 관계가 덜 지지적인 경우 형제자매를 통해 보상할 수 있으며(Bryant, 1992), 공격적 아동의 또래간 공격성을 보상하는 사회적 기술을 기를 수도 있다(Hartup, 1983).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형제자매간의 모델링과 부정적 강화를 통해 공격적 행동이 증가한다는 부정적 측면을 강조했다(Loeber & Tengs, 1986; Patterson, 1982). 공격적 아동의 경우 형제자매간의 공격적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Hetherington, 1988), 문제가 없는 아동보다 반사회적인 아동은 모델링을 통해 형제로부터 공격적 행동을 더 많이 배움으로써, 공격적 행동이

증가하였다(Patterson, 1982).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결과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아동의 긍정적 및 부정적 형제자매관계와 공격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관계 및 가족 상호작용과 아동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가정환경으로서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아동의 형제자매관계는 각각 아동의 공격성과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관계를 동시에 포함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므로 본 연구를 통해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선행연구들에서 아동의 공격성은 주로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으로 나뉘어 연구되어 왔다(Maccoby & Jacklin, 1980; Parke & Slaby, 1983). 그러나, 최근 들어 Crick(1995)은 공격성을 외현화(Overt) 공격성 및 관계적(Relational) 공격성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신체적 혹은 언어적 공격과 같은 직접적 공격성으로, 후자는 관계를 손상시킴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주고자 하는 간접적 공격성으로 정의하였다. 외국의 경우 가족내의 관계와 아동의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Crick & Dodge, 1994)가 보고되고는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이에 관한 보고가 거의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를 주제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격성은 아동의 성에 따라 다소 비일관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남아들이 여아에 비해 공격성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Maccoby & Jacklin, 1980)가 있는가 하면 여아도 남아만큼 공격적일 수 있음을 보고한 경우도 있다(Parke & Slaby, 1983). 또한 공격성의 유형을 고려해 볼 때 남아는 외현화 공격성을, 여아는 관계적 공격성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용태·박한샘, 1997; Crick, Casas, & Mosher, 1997; McNeilly-Choque, Hart, Olsen,

Robinson, & Nelson, 1996). 다시 말하면, 남아의 경우 신체적 공격과 같은 직접적인 공격성에 더 많이 노출되는 반면, 여아는 간접적인 공격, 즉 놀이집단으로부터 제외시키거나, 의도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 조정하기 위해 우정관계를 철회하고, 소문을 퍼뜨려서 다른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도록 만드는 등, 고의로 우정관계나 집단내 소속감을 손상시키는 관계적 공격성을 많이 나타낸다. 여아의 이러한 관계적 공격성은 최근 들어 몇몇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이경희, 1998; Crick, Casas, & Ku, 1999; Crick & Grotpeter, 1996), 남아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신체적 공격성보다 사회적·정서적 부적응과 더욱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Crick & Grotpeter, 1996). 이에 반해, 외현화 공격성은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이 나타내지만,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는 성차가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Tomada & Schneider, 1997)도 있다. 이처럼 공격성의 성차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다소 비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 여아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들은 극히 드문 실정이므로 본 연구는 연구대상으로 남아뿐만 아니라 여아를 포함시켜, 공격성의 성차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에 따른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신체적 처벌이나 심리적 통제는 남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는 반면(Kagan & Moss, 1962), 남아보다 여아가 대체로 부모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으며(Richards, Gitelson, Peterson, & Hurtig, 1991), 아버지와 어머니의 엄한 처벌태도는 특히 여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이현순, 1982)도 있다. 그리고 부부갈등과 관련된 성별 연구에서, 부부갈등은 여아

보다는 남아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Emery & O'Leary, 1982)에 반해, 여아가 남아보다 부부갈등의 목격과 경험으로 인해 내재적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많이 나타냈다는 연구결과들(Sternberg, Lamb, Greenbaum, Cicchetti, Dawud, Cortes, Kirspin, & Lorey, 1993)도 있다. 또한 연령에 따라 학령기 초기나 중기에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지만 학령기 말과 사춘기에는 성별에 따라 비슷한 정도의 행동문제를 보이거나 여아가 더 취약하다는 결과(Hethrington, Cox, & Cox, 1985)도 있다. 형제자매관계에 있어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형제자매와 보다 많은 상호작용을 하므로, 형제자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김상희, 1982). 따라서 아동의 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간의 관계를 남아와 여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를 아동의 지각을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평가자간 지각차이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권영옥, 1997; 이민식, 1999)에 기초해 볼 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 변인들을 부모의 평가에 의존할 경우, 이는 아동이 지각한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의 행동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 자신의 지각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리라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아동의 공격성을 급우가 지명하여 평가하는 또래보고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데, 이는 또래보고가 개별 아동의 편견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키고 측정의 신뢰도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공격성의 객관성 있는 평가

로 인정받고 있는 점(Huesman, Lagerspetz, & Eron, 1984)에 근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부갈등과 아동의 형제자매관계는 아동 자신의 보고를, 공격성은 또래보고를 이용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학령기 말의 6학년 남녀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격성의 성차를 알아본 후,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가 남녀 아동의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공격성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양육행동은 남녀 아동의 공격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1) 부·모의 신체적 처벌은 남녀 아동의 공격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남녀 아동의 공격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부부갈등은 남녀 아동의 공격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아동의 형제자매관계는 남녀 아동의 공격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1) 아동의 긍정적 형제자매관계는 남녀 아동의 공격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아동의 부정적 형제자매관계는 남녀 아동의 공격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P시의 거주 환경이 비슷한 2개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10학급(학교별 5학급씩)의 6학년에 재학중인 301명 남녀 아동들(남: 161명, 여: 140명)이다. 본 연구는 가족 관계와 관련되는 아동의 문제행동이 학령기 초기부터 점차 증가하여 청소년 초기 사이에 극에 달한다는 연구결과(Anderson, Russel, & Shumm, 1983)에 근거하여 학령기 말에서 청소년 초기로의 전환기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중·하류층의 아동들이 중·상류층의 아동들보다 공격성이 높다는 보고들(최재숙, 1984; Green & Schneider, 1974)에 근거해 중·하류층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공격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 도구는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아동의 형제자매관계, 그리고 아동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들로 구성된다. 일반적인 사항들과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는 아동 자신에 의해 그리고 공격성은 또래에 의해 측정되었다.

1)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

부모의 양육행동은 신체적 처벌과 심리적 통제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거의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로 평가하

는 Likert식 4점 척도이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처벌 및 심리적 통제를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적 처벌 요인은 Straus(1979)가 제작한 CTS(Conflict Tactics Scales) 중 신체적 폭력(violence)과 관련된 문항들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원래 CTS는 합리적 대처(Reasoning), 언어적 공격(verbal Aggression), 신체적 폭력(Violence) 등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인 폭력과 관련된 9문항 가운데 극심한 폭력(예: '칼이나 흉기로 위협했다'와 '칼이나 흉기를 사용했다')을 제외한 7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값을 산출한 결과, 아버지의 신체적 처벌과 어머니의 신체적 처벌은 둘 다 .90이었다.

심리적 통제 요인은 16문항으로 구성된 Barber(1966)의 심리적 통제 척도에 Hart 등(1998)이 사용한 척도에서 심리적 통제와 관련된 3문항을 추가하여 총 19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Barber(1966)의 심리적 통제 척도는 언어적 표현 제약(constraining verbal expressions), 무가치감(invalidating feeling), 개인적 비난(personal attack on child), 죄책감 유도(guilt induction), 애정철회(love withdrawal), 변덕스런 정서행동(erratic emotional behavior)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s α 값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각각 .92와 .91이었다.

2) 부부갈등 척도

부부갈등 척도는 Straus(1979)가 제작한 CTS(Conflict Tactics Scales) 가운데 합리적

대처에 해당하는 3문항과 신체적 폭력에서 극심한 폭력에 해당하는 2문항을 제외하고 총 13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전혀 없다(1점)’, ‘1년에 1~2번 이상(2점)’, ‘1달에 1~2번 이상(3점)’, ‘1주일에 1~2번 이상(4점)’, ‘거의 매일(5점)’로 평가하는 5점 척도로서,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및 폭력이 빈번하고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언어적·신체적 폭력보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폭력이 주로 보고되므로, 본 연구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언어적·신체적 폭력정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s α 값은 .79이었다.

3) 아동의 형제자매 관계 척도

아동의 형제자매 관계 척도는 긍정적인 행동에 관한 요인과 부정적인 행동에 관한 요인으로 구성된다. 긍정적 행동척도는 Dunn, Slomkowski와 Beardsall(1994)의 긍정적 형제관계척도에 Danials와 Plomin(1985)의 형제자매 관계 척도에서 2문항을 추가하여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정적 행동 척도는 Dunn, Slomkowski와 Beardsall(1994)의 부정적 형제관계척도에서 7문항과 Stormshak, Bellanti와 Bierman(1996)의 척도에서 2문항, Brody, Stoneman, McCoy와 Forehand(1992)의 척도에서 4문항, Straus(1979)가 제작한 CTS(Conflict Tactics Scales) 중 신체적 폭력(violence)과 관련된 6문항을 이용하여 총 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거의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로 평가하는 Likert식 4점 척도로서,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형제관계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s α 값은 긍정적 행동척도는 .92이며 부정적 행동척도는 .92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4) 아동의 공격성 척도

아동의 공격성 척도는 Crick(1995)의 공격성 척도에 기초하여 외현화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이 중 외현화 공격성은 Crick과 Werner(1998)의 공격성 척도에서 5문항과 Crick과 Grotzinger(1996)가 사용한 문항 중에서 외현화 공격성에 관한 ‘싸움을 잘하는 친구’에 관한 1문항을 추가하여 총 6문항, 관계적 공격성은 Crick과 Werner(1998)의 공격성 척도 5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의 공격성 척도는 첫번째 행에 학급의 급우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표의 첫번째 열에는 척도의 문항들이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들은 우선 첫번째 행에서 자기 이름에 X표를 한 후, 각 문항에 대해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급우의 이름 아래에 V표를 3명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다. 각 아동의 공격성 점수는 그 아동의 행동이 각 문항에 해당된다고 표시된 숫자들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2000년 9월에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2군데 학교의 학교장의 동의하에, 학교를 찾아가 교사들에게 질문지와 조사방법에 관해 설명하였다. 질문지를 교사에게 배부한 후, 교실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자리에서 회수하도록 하였다. 배부된 400부의 질문지 가운데 366부가 수거되었으나, 부적절한 질문지(30부)와 외동이의 경우(35부)를 제외하고 총 301사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program을 사용하여 신뢰도 산출, t 검증, 중다회귀분석 등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고, 공격성에서의 성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부

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공격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 혹은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공격성에서의 성차

아동의 공격성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공격성의 한

요인인 외현화 공격성의 경우는 유의한 성차를 보여,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은 공격성을 나타낸 반면, 관계적 공격성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

<표 1> 성에 따른 아동의 공격성의 차이

	남아(N=161)		여아(N=140)		<i>t</i>
	M	SD	M	SD	
외현화 공격성	17.16	25.65	4.78	8.68	5.76***
관계적 공격성	9.09	14.63	7.09	9.77	n.s.

*** $p < .001$

2.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양육행동 2가지 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육행동의 하위요인들은 대부분 남녀 아동의 공격성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표 2>). 남아의 경우, 아버지의 신체적 처벌 및 심리적 통제는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 모두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즉, 아버지가 신체적 처벌이나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아동의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신체적 처벌은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 모두와 관계가 있었으나, 심리적 통제는 외현화 공격성과만 관계가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남아의 공격성을

설명하는 정도는 25~36%이었다. 여아의 경우, 아버지의 신체적 처벌은 외현화 공격성과만 관계가 있었고, 심리적 통제는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 모두와 관계가 있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요인들 가운데는 심리적 통제만이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 모두와 관계가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여아의 공격성을 설명하는 정도는 27~38%이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행동을 동시에 고려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아의 경우, 외현화 공격성에 대해 아버지의 신체적 처벌($\beta = .37, p < .01$)과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beta = .25, p < .05$) 순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아버지의 신체적 처벌과 심리적 통제는 또한 관계적 공격성

에 대해서도 유사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신체적 처벌: $\beta = .31, p < .05$, 심리적 통제: $\beta = .26, p < .05$). 남아의 외현화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양육행동의 설명력은 각각 36%와 30%이었다. 여아의 경우, 외현화 공격성에 대해서는 어머니

의 심리적 통제($\beta = .39, p < .001$)와 아버지의 신체적 처벌($\beta = .29, p < .01$)이, 관계적 공격성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beta = .52, p < .001$)만이 관계가 있었다. 여아의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양육행동의 설명력은 각각 40%와 27%이었다.

<표 2>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아버지·어머니 양육행동의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남아				여아			
	외현화		관계적		외현화		관계적	
	B	β	B	β	B	β	B	β
아버지 신체적 처벌	2.36	.37**	1.11	.31*	.85	.38***	.53	.21
아버지 심리적 통제	.67	.25*	.40	.26*	.24	.25*	.37	.34**
R ²	.36		.30		.36		.38	
F	43.92***		33.22***		38.56***		38.56***	
어머니 신체적 처벌	1.66	.26*	1.30	.36**	.35	.15	.34	.16
어머니 심리적 통제	.80	.30*	.26	.17	.49	.48***	.14	.38**
R ²	.29		.25		.38		.27	
F	31.56***		26.88***		41.05***		25.25***	

* $p < .05$, ** $p < .01$, *** $p < .001$

3. 부부갈등과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부부갈등과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부부갈등을 독립변인으로, 아동의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부부갈등은 남아의 경우는 아동의

공격성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여아의 경우는 외현화 공격성 및 관계적 공격성 모두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즉, 부부갈등에 많이 노출될수록 여아의 외현화 공격성 및 관계적 공격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부부갈등의 단순회귀분석

독립변인	남아				여아			
	외현화		관계적		외현화		관계적	
	B	β	B	β	B	β	B	β
부부갈등	.53	.09	.17	.05	.47	.18*	.62	.21*
R ²	.01		.00		.03		.04	
F	1.31		.45		4.40*		6.07*	

* $p < .05$

4.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공격성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긍정적·부정적 형제자매관계를 독립변인으로, 아동의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형제자매관계와 남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를 보면(<표 4>), 남아의 경우 부정적 형제자매관계만이 외현화 공격성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 형제자매관계를 부정

적으로 지각할수록 남이는 높은 외현화 공격성을 나타내었다. 아동의 형제자매관계가 남아의 외현화 공격성을 설명하는 정도는 7%이었다. 여아의 경우, 긍정적 형제자매관계는 외현화 공격성과만 관계가 있었고, 부정적 형제자매관계는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 모두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아동의 형제자매관계가 여아의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을 설명하는 정도는 각각 16%와 19%로 나타났다.

<표 4>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형제자매관계의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남아				여아			
	외현화		관계적		외현화		관계적	
	B	β	B	β	B	β	B	β
긍정적 관계	-.32	-.10	-.29	-.16	-.18	-.17**	-.17	-.14
부정적 관계	.62	.22**	.16	.10	.29	.30***	.39	.36***
R ²	.07		.04		.16		.19	
F	5.93**		3.61*		13.31***		16.51***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으며, 동시에 공격성에서의 성차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아동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문제별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성에서의 성차를 보면, 남아가 여아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아의 공격성이 여아의 공격성보다 높다는 선행연구들(신미숙, 1997; Hyde, 1984; Maccoby & Jacklin,

1980)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남아와 여아의 사회화 과정에서의 차이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즉 부모들은 남아와 공격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렸을 때부터 남아의 공격성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남이는 친구들이나 그 밖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공격성의 강화원을 더 접하기 쉽고, 이러한 공격성을 내재화하여 학습하는 경향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남녀 아동간의 성차는 공격성의 유형 중 외현화 공격성에서만 발견되었고, 관계적 공격성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외현화 공격성에는 성차가 있었지만, 관계적 공격성에서는 남녀아동의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Hart et al., 1998)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외현화 공격성은 남아가 높고, 관계적 공격성은 여아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신미숙, 1997; 이경희, 1998; Berkowitz, 1993; Crick, 1995; Crick & Grotpeter, 1995; Galen & Underwood, 1997)과는 일치되지 않았다. 이처럼 관계적 공격성에서 나타난 불일치는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차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즉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에서의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Cairns, Cairns, Neckerman, Fergusson, & Garipey, 1989)을 보면 학령기 초기에 남아는 외현화 공격성이, 여아는 관계적 공격성이 높게 표현되는 경향이 뚜렷하지만, 학령기 말이나 청소년기로 가면서 사회기술이나 사회인지 능력의 습득을 통해 남녀 모두에게 관계적 공격성이 많이 나타나며, 이 시기에는 특히 관계적 공격성에서의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관계적 공격성은 다른 아동을 소외 또는 배척함으로써 집단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남녀 모두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이 학령기 말의 아동이라는 점에서 볼 때,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신체적 처벌 및 심리적 통제와 같은 양육행동 요인들이 남녀 아동의 공격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남녀 아동 모두 부모가 신체적 처벌 및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높은 공격성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공격성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민식, 1999; Eckenrode, Laird, & Doris, 1993; Olweus, 1993)을 비롯하여, 특히 부모의 신체적 처벌 및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Hart et al., 1998; Perry et

al., 1988)과 일치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신체적 처벌의 영향력은 남아는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 모두와 관계가 있었고, 여아는 외현화 공격성 과만 관계가 있었다. 어머니의 신체적 처벌은 남아의 경우에만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 모두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즉 신체적 처벌을 받은 경험을 통해 아동은 공격적인 행동을 배우게 되고, 가정 밖에서 높은 수준의 분노와 충동을 표현하였다(Miler & Chilamkurti, 1991). 부모가 신체적 처벌을 할 경우, 아동은 부모를 모델링함으로써 공격적인 아동이 되기 쉬우며, 특히 남아의 경우 동성모델링에 의해 더욱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노치영, 1988; 임문제, 1998). 또한 어머니의 신체적 처벌이 특히 남아의 경우에만 영향을 미친 결과는, 어머니의 신체적 처벌이 남아의 공격성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이종철, 1996)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남녀 아동의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과 대부분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아동은 적대적이며 공격적으로 성장한다는 연구결과(Harold et al., 1997)와 일치하며,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했을 경우, 자녀에게 강한 위협이 되므로 정서적 안정을 얻지 못하고 분노와 슬픔 등 부정적인 정서상태뿐만 아니라 부모의 통제에 반발하여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Davies & Cummings, 1994)와도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가 애정을 주지 않고, 강압적인 심리적 통제를 했을 경우, 남녀 아동의 공격성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McFadyen-Ketchum, Bates, Dodge, & Pettit, 1996)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가 심리적으로 통제를 할 경우, 아동은 더 많은 좌절을 경험하

고, 이러한 아동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누적된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공격적인 문제를 더 많이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부갈등과 남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은 남아의 경우, 공격성과 유의한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아의 경우 외현화 공격성 및 관계적 공격성 모두와 관련이 있었다. 즉, 부부간의 갈등에 많이 노출될수록 여아는 외현화 공격성 및 관계적 공격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의 갈등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갈등과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의 갈등은 아동의 공격성과 일관되게 관련이 있고(Davies & Cummings, 1994; Grych et al., 1992),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언어적 공격 및 신체적 폭력을 많이 행사할수록 자녀의 공격성은 높다는 연구결과(Forsstrom-cohen & Rosenbaum, 1985)와 일치한다. 즉 부모가 싸우는 것을 자주 목격하거나 부부싸움의 강도가 심할수록 아동은 외현화 문제 및 공격성이 높아지고(Jenkins & Smith, 1990; Long, Forehand, Fauber, & Brody, 1987), 부모의 폭력을 자주 목격한 아동들은 목격하지 않은 아동들보다 또래관계에서 더 적대적이고 공격적이었다(Davies & Cummings, 1994).

한편 부부갈등과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부부갈등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이 학령기 말에 속한다는 점에서 볼 때, 학령기 초기에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부부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에 더 취약하지만, 학령기 말과 청소년기에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취약하다는 결과(Sternberg et al., 1993)와 일치한다. 또한 여아가 대인관계에 민감한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부모의 갈등에 남아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도 설명될

다(권영옥, 1997).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들에서 남아가 부부갈등의 영향에 더 취약한 경향이 있고(Hart et al., 1998), 학령기 말과 청소년기에는 성차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들(Hetherington et al., 1985; Zaslow, 1989)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한 폭력은 동성의 자녀에게 강력한 모델이 되어 남아가 여아보다 더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들(노치영, 1988)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논의는 쉽지 않으나, 일치하지 않는 연구들의 대상아동들이 대부분 학령기 초기라는 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아동과의 연령적 차이에서 기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아동의 형제자매 관계의 하위요인으로 긍정적 형제자매관계 및 부정적 형제자매관계가 아동의 공격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긍정적 형제자매관계는 여아의 외현화 공격성과만 관계가 있었고, 부정적 형제자매관계는 남아의 외현화 공격성과 여아의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과 관계가 있었다. 대체로 아동의 공격성은 형제자매관계가 긍정적이면 덜 나타나지만, 부정적이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의 형제자매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또래공격성을 덜 나타내고, 문제 행동을 덜 하며(Loeber & Tengs, 1986), 공격적인 아동의 또래간 공격성을 보상하는 사회적 기술을 길러준다는 연구결과(Hartup, 1983)와 일치하였다. 또한 형제자매간의 부정적 상호작용은 모델링을 통해 더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되며(Patterson, 1982), 형제자매관계가 적대적이고 공격적일 경우, 또래를 향한 공격적 행동이 더 강화되고(Hetherington, 1988), 형제자매간의 갈등이 많을수록 또래에 대한 공격성이 높다는 연구결과(Stormshak et al., 1996)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아동의 형제자매관계는 공격성과는 관련

성이 없으며(Abramovitch, Corter, Pepler, & Stanhope, 1986), 형제자매간의 적당한 갈등과 지지는 정서적 통제, 사회적 유능성 및 사회적 기술을 높이고, 또래공격성을 덜 나타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Stormshak et al., 1996)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형제자매관계의 상대적 영향력을 볼 때, 부정적 형제자매관계가 긍정적 형제자매관계보다 남녀아동의 공격성에 더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즉 형제자매관계가 긍정적일 때 공격성이 덜 나타나기보다 부정적일 때 공격성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아가 남아보다 형제자매관계와 공격성이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아의 경우 남아보다 형제를 돌보는 일이 많다는 점(Schvaneveldt & Ihinger, 1985)과 관련시켜 설명할 수 있다. 즉, 여아는 남아에 비해 형제자매와 보다 많은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Cicirelli, 1973), 나아가 이로 인한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도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아동의 공격성에 있어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및 형제자매관계와 같은 가족내의 관계를 함께 다루었고,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과는 달리 공격성의 유형을 외현화 및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기존의 공격성 연구가 대부분 남아를 대상으로 한 점과 달리, 본 연구는 남녀아동 각각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등한시 되어왔던 여아의 공격성을 알아본 것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중·하류층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표본의 동질성으로 인해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계층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Maccoby & Jacklin, 1980), 중·하류층 부모의 경우는 자녀들에게 신

체적 처벌 및 심리적 통제를 더 많이 행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김광일·고복자, 1987; Elder & Caspi, 1988; Hyman, 1987)과 부부갈등이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김재경, 1991)에서 볼 때,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아동의 성에 따른 부부갈등과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에서 여아의 경우가 남아의 경우보다 높은 관련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부부갈등을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을 통해서만 측정함으로써 여아의 경우에는 동성 부모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가 없었다. 따라서 아동은 자신과 동성의 부모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부갈등상황이 남아와 여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등상황 하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행동 모두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형제자매관계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발견하기 위해 연구대상에서 외동이를 제외함으로써 외동이의 공격성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부부갈등의 영향력은 측정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보다 다양한 출생순위의 아동들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후속연구에서는 외동이를 포함한 연구가 수행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는 아동자신의 보고만을 이용하였다. 주변상황이나 아동자신의 상황에 대해 아동의 지각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권영옥, 1997; 이민식, 1999; Grych et al., 1992; Harold et al., 1997)이 있기는 하지만,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를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보고나 제 3자의 관찰을 포함한 연구를 통해 측정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영옥(1997).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행동 문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광일·고복자(1987). 아동구타의 발생률 조사. 정신건강연구, 6, 66-81.
- 김상희(1982). 학령전 아동의 형제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태·박한샘(1997). 청소년 친구 따돌림의 실태 조사. 제 14회 특수상담사례연구 발표회. 청소년대화의 광장.
- 김재경(1991).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1991). 어머니의 통제 유형이 유아의 공격성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치영(1988). 가정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미숙(1997). 아동의 공격성 유형에 따른 성차 및 사회-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1998). 관계지향 공격성 및 외현화 공격성과 심리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초등 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식(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철(1996). 부모의 체벌과 자녀의 공격성간의 상관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순(1982).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문재(1998). 초등학생의 체벌 수용도와 공격성간의 상관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지영(1999). 부부갈등이 아동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지순(199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준미(1998). 부모의 아동기 폭력경험과 자녀체벌과의 관계모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재숙(1984). 유아의 공격행동에 대한 부모의 처벌과 유아의 공격성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ramovitch, R., Corter, C., Pepler, D. J., & Stanhope, L. (1986). Sibling and peer interaction: A final follow-up and a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57, 217-229.
- Anderson, S. A., Russell, C. S., & Schumm, W. R. (1983). Perceived marital quality and family life-cycle category: A further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27-139.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erkowitz, L. (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Academic Press.
- Brody, G. H., Stoneman, Z., Mackinnon, C. E. (1982). Role asymmetries in interactions among school-aged children, their younger siblings, and their friend. *Child Development*, 53, 1364-1370.
- Brody, G. H., Stoneman, Z., McCoy, K., &

- Forehand, R. (1992). Contemporaneous and longitudinal associations of sibling conflict with family relationship assessments and family discussions about sibling problems. *Child Development, 63*, 391-400.
- Bryant, B. K. (1992). Sibling caretaking: Providing emotional support during middle children. In F. Boer & J. Dunn (Eds.),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s: Developmental and clinical issues*, 55-70. Hillsdale, NJ: Erlbaum.
- Cairns, R. B., Cairns, B. D., Neckerman, H. J., Fergusson, L. L., & Garipey, J. L. (1989). Growth and aggression: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5*, 320-330.
- Carson, L., & Parke, R. (1996). Reciprocal negative affect in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children's peer competency. *Child Development, 67*, 2217-2226.
- Cicirelli, V. G. (1973). Effects of Sibling Structure and interaction on children's categorization style. *Developmental Psychology, 9*, 132-139.
- Crick, N. R. (1995). Relational aggression: The role of intent attributions, feelings of distress, and provocation typ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313-322.
- Crick, N. R., Casas, J. F., & Ku, H. (1999). Relational and overt forms of peer victimization: A multiinformant approach. *Developmental Psychology, 35*, 376-385.
- Crick, N. R., Casas, J. F., & Mosher, M. (1997).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3*, 579-588.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74-101.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6).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7*, 2328-2338.
- Crick, N. R., & Werner, N. E. (1998). Response decision processes in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9*, 1630-1639.
- Crouter, A., & McHale, S. (1989). Child-rearing in dual- and single-earner familie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chool-age children.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 Kansas City, Mo.
- Cummings, E. M., & El-Sheikh, M. (1991). Children's coping with angry environments: A process-oriented approach. In M. Cummings, A. Greene, & K. Karraker(Ed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Perspective on stress and coping*. Hillsdale, NJ: Erlbaum.
- Daniels, D., & Plomin, R. (1985). Differential Experience of Siblings in the Same Family. *Developmental Psychology, 21*, 747-760.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unn, J., Slomkowski, C., & Beardsall, L.

- (1994). Sibling relationships from the preschool period through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0*, 315-324.
- Eckenrode, J., Laird, M., & Doris, D. (1993). School performance and disciplinary problems among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53-62.
- Elder, G. H., & Caspi, A. (1988). Economic stress in lives: Developmental perspec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92*, 310-330.
- Emery, R. E., & O'Leary, K. D. (1982). Children's perceptions of marital discord and behavior problems of boys and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11-24.
- Fincham, F. D. (1994). Understanding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23-127.
- Framo, J. L. (1975). Personal reflections of a therapis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Counselling, 1*, 15-28.
- Galen, B. R., & Underwood, M. K. (1997). A developmental investigation of social aggression amo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 589-600.
- Green, F. P., & Schneider, F. W. (1974). Age Differences in the Behavior of Boys on Three Measures of Altruism. *Child Development, 45*.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Harold, G. T., Fincham, F. D., Osborne, L. N., & Conger, R. D. (1997). Mom and dad are at it again: Adolescent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3*, 333-350.
- Hart, C. H., DeWolf, M., Wozniak, P., & Burts, D. C. (1992). Maternal and paternal disciplinary style: Relations with preschooler's playground behavioral and peer status. *Child Development, 63*, 879-892.
-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en, S. F., & McNeilly-Choque, M. K. (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school-age children: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687-697.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E. M. Hetherington(Ed.) & P. H. Mussen(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 103-196. New York: Wiley.
- Hetherington, E. M. (1988). Parents, children, and siblings six years after divorce. In R. Hinde & J. Stevenson-Hinde(Eds.), *Relationships with families*, 311-331.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 (1985). Long-term effects of divorce and remarriage on the adjustment of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4*, 518-530.

- Huesman, L. R., Laperspetz, K., & Eron, L. D. (1984). Intervening variables in the TV violence-aggression relation: Evidence from two countr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746-775.
- Hyde, J. S. (1984). How large are gender differences in aggression? A developmental meta-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722-736.
- Hyman, I. A. (1987). Psychological correlates of corporal punishment. In Brassard, M. R., Germain, R., & Hart, S. N. (Eds.),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children and youth*, 59-68. New York: Pergamon Press.
- Jenkins, J. M., & Smith, M. A. (1990). Marital disharmony and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Aspects of a poor marriage that affect children adversel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 Johnston, J. R., Gonzalez, R., & Campbell, L. E. (1987). Ongoing post-divorce conflict and child disturba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497-509.
- Kagan, J., & Moss, H. A. (1962). *Birth to maturity: A study in psychological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Katz, L. F., & Gottman, J. M. (1993). Patterns of marital conflict predict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940-950.
- Loeber, R., & Tengs, T. (1986). The analysis of coercive chains between children, mothers, and sibling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 51-70.
- Long, N., Forehand, R., Fauber, R., & Brody, G. (1987). Self-perceived and independently observed competence of young adolescents as a function of parental marital conflict and recent divor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15-27.
- Maccoby, E. E., & Jacklin, C. N. (198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A rejoinder and reprise. *Child Development, 51*, 964-980.
- McFadyen-Ketchum, S. A., Bates, J. E., Dodge, K. A., & Petit, G. S. (1996). Patterns of change in early childhood aggressive-disruptive behavior: Gender differences in predictions from early coercive and affectionate mother-child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67*, 2417-2433.
- McNeilly-Choque, M. K., Hart, C. H., Olsen, S. F., Robinson, C. C., & Nelson, L. J. (1996).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on the playground: Correspondence among different informants.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1*, 47-67.
- Miler, J. S., & Chilamkurti, C. (1991). Physical child abuse perpetrator characteristic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6*, 345-366.
- Olweus, D. (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Pepler & K. 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ren aggression*. Hillsdale, NJ: Erlbaum.
- Olweus, D. (1993).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Bullying at School*.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Parke, R. D., & Slaby, R. G. (1983). The development on aggression. In E. M. Hetherington (Eds.), P. H. Mussen

- (Sea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4*, 547-642. New York: Wiley.
- Patterson, G. R.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A social learning approach, 3*. Eugene, OR: Castalia.
- Patterson, G. R. (1986). The contribution of siblings to training for fighting: A microsocial analysis. In D. Olweus, J. Block, & M. Radke Yarrow(Eds.), *Developmental of antisocial and prosocial behavior: Research, theory, and issues, 235-261*. New York: Academic Press.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Richards, M. H., Gitelson, I. B., Peterson, A. C., & Hurtig, A. L. (1991). Adolescent Personality in girls and boys: The role of mothers and fathe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5*, 65-81.
- Schvaneveldt, J. & Ihinger, M. (1985). Sibling relationships in the family.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1: Research-based theories*. N. Y: Free Press. 453-467.
- Sears, R. R. (1961). The relation of early socialization experience to aggression in middle childhood. *Th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63*.
- Sternberg, K. J., Lamb, M. E., Greenbaum, C., Cicchetti, D., Dawud, S., Cortes, R. M., Kirspin, O., & Lorey, F. (1993).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dep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44-52.
- Stocker, C., & Dunn, J. (1990). Sibling relationships in childhood: Links with friendships and peer relationship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8*, 227-244.
- Stormshak, E. A., Bellanti, C. J., Bierman, C. J., &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1996). The Quality of Sibling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al Control in Aggressiv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2*, 79-89.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Tomada, G., & Schneider, B. H. (1997).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peer acceptance: Invariance across culture, stability, and concordance among inform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51*, 943-963.
- Zaslow, M. J. (1989). Sex differences in children's responds to parental divorce: 2. Samples, variables, ages, and sourc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118-141.